固有語彙 硏究

- 〈耽羅營事例〉와 〈濟州事例〉를 중심으로 -

오 창 명*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854년에서 1863년까지의 것으로 꾸며진, 1책 37장의 필사본 〈耽羅營事例〉와 1책 63장의 필사본 〈濟州事例〉[1]에 나오는 고유어휘를 찾아 정리하여 연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례〉는 해당 관아의 각종 규정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책을 지칭한다고 한다. 〈탐라영사례〉와 〈제주사례〉는 읍지류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사례〉에 비해 독특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서 사료의 가치가 높다고 한다. 특히 제주관아의 행정·재정사 연구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글은 제주의 행정이나 재정사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책들에 나오는 固有語彙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서 논의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여기서 말하는 '고유어휘'는 본디부터 우리 나라에서 써 온 것인데,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한자로 표기한 것을 이른다. 곧 한자를 빌려 표기[借字表記]한 우리말을 이른다. 중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사 자료에 나타나는 고유어휘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지방사를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역사의 올바른 해독과 이해를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耽羅營事例〉와 〈濟州事例〉에 대한 서지적 사항과 내용에 대한 해제는 권인혁(1994, 1996ㄱ, ㄴ)을 참고할 수 있다. 〈탐라영사례〉는 〈제주도사연구〉 5집에 영인된 것을 이용했고, 〈濟州事例〉는 제주대학교 사학과 권인혁 교수의 복사본을 이용하였다. 이 책들을 볼 수 있게 해 준 권인혁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濟州事例〉는 題名(題目·書名)이 기재된 겉장(表題紙)이 낙장되어 권인혁 교수가 붙인 가칭이다. 이 책은 필사본이기 때문에 卷首題(內題), 卷尾題, 版心題 등도 없다.
〈耽羅事例〉라는 이름을 가진 책도 있다. 이 책도 일찍부터 알려졌으나 落張이 많은 듯하여 아직 본격적으로 소개된 적은 없다.

위해서는 우리말을 표기한 차자표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글도 제주지방사 자료인 〈탐라영사례〉와 〈제주사례〉의 올바른 해독과 이해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명은 다루지 않았다.

2. 본 론

2.1 사 람

1) 刀尺[갈자이〉칼자이]

三石三斗刀尺料下/세 섬 세 말을 '칼자이'에게 급료로 내어준다.〈耽羅營事例〉(74면).

刀尺은 〈與猶堂全書〉(雅言覺非)에 '今庖奴 名曰刀尺', 〈行用吏文〉에 '刀尺 칼자이 外邑治膳漢也', 〈古今釋林〉(권27, 東韓譯語, 釋色)에 '刀尺 本朝今外邑掌廚供者 謂之刀尺 俗云칼ᄌᆞ이'라 한 것으로 보아, 고유어 '갈자이〉칼자이'의 차자 표기임을 알 수 있다. 刀尺은 한자음 '도척'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刀는 '갈〉칼'의 훈독자 표기이다. 尺은 '자이'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곧 '이'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표기이다. '-자이'는 현대국어의 '-잡이'에 대응하는 말로 보인다. '칼자이'는 지방 관아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맡은 사람을 이른다.

2) 月羅匠[돌레장]

一石九斗 月羅匠 料下/한 섬 아홉 말을 '돌레장이'에게 급료로 내어준다.〈耽羅營事例〉(45면).

月羅는 '돌레'의 차자 표기이다. 月은 '돌'의 훈가자 표기, 羅는 '레' 또는 '래'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돌레'는 말이 움직이거나 달릴 때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 양쪽에 드리우는 가리개를 이르는 제주도방언이다. 현대어 '다래' 또는 '말다래', 중세어 '돌애〉ᄃᆞ래/다리'에 대응한다.

鞔돌애 첨 俗呼馬彰 亦作鞔〈훈몽-초, 중:13〉. 鞔 馬障泥 今俗呼馬鞔돌애〈사해-중, 하:84〉

2.2 어류 및 패류, 기타류

1) 多士麻[다ᄉ마]

多士麻一足/다시마 1족.〈濟州事例〉(39면).

多士麻는 '다시마'의 근대어 '다ᄉ마'의 차자표기이다. 多는 '다'의 음가자, 士는 'ᄉ'의 음가자, 麻는 '마'의 음가자 표기이다. 한자 표기 때문에 근대어에 '다사마'로도 실현되었다. 다른 자료에서는 多士摩[다ᄉ마], 塔士麻[다ᄉ마] 등으로도 표기되고 있다.

海帶 다ᄉ마〈역해, 상:54〉. 海帶菜 다ᄉ마〈한청 12:39〉. 海帶 生石上 柔靭而長 다사마〈물명 3:27〉.

2) 道味[도미]

道味一尾/도미 1마리.〈耽羅營事例〉(61면)

道味는 바닷물고기의 하나인 '도미'의 차자 표기이다. 道는 '도'의 음가자, 味는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3) 木[무면〉믜명〉무명]

反利木一同八疋十五尺二寸 代以馬牛監料 還米取用內/번리 무명 1동 8필 15자 2치는 馬牛監料로 대신하고, 還米로 취용한 것 안에.〈耽羅營事例〉(28면).

木은 '무면〉믜명〉무명'의 훈독자로 쓰였으나, 원래 한자어 木棉에서 木만 표기하면서 '무명'을 뜻하는 한국한자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무명'을 한자로 生木으로 표기하는 것도 그러한 예로 보인다.

4) 阿甘味[아가미]

阿甘味鹽一合/아가미젓 1홉.〈耽羅營事例〉(61면).

阿甘味는 '아가미'의 차자 표기이다. 阿는 '아'의 음가자, 甘은 '감'의 일부음 '가'의 음가자, 味는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鹽은 소금에 절인 '젓'의 훈독자 표기로 보인다.

5) 牛毛[우모]

靑角牛毛/청각채 · 우모.〈耽羅營事例〉(61면).

牛毛는 '우뭇가사리'를 이르는 '우무 · 우모'의 차자 표기이다. 牛는 '우'의 음가자, 毛는 '모'의 음가자 표기이다. '우모'의 현대 제주도방언은 '우미'이다.

6) 月羅實[ᄃᆞ레욜메〉ᄃᆞ레욜메]

月羅實五味子山藥/달래나무의 열매 · 오미자 · 산약.〈耽羅營事例〉(61면).

月羅는 'ᄃᆞ레'의 차자 표기로, '다래'의 제주도방언이다. 예문의 月羅實은 'ᄃᆞ레욜메〉ᄃᆞ레욜메'(다래 나무의 열매)의 차자 표기이다. '다래나무'의 근대어는 '돌외나무'(水苦梨木 돌외나모 〈역해, 하:42〉)로 실현된다.

7) 全卜[전복]

全卜一貼/전복 1접.〈耽羅營事例〉(61면).
…全鰒三串…全卜三貼五串…/…전복 3고지…전복 3접 5고지.〈濟州事例〉(37면).

全卜은 전복(全鰒)의 차자 표기이다. 全은 '전'의 음가자, 卜은 '복'의 음가자 표기이다. '전복'은 다음과 같이 원래의 한자 全鰒으로 표기하기도 했으나, 차자 표기인 全卜으로도 표기하였다.

朔膳封進 全鰒三串/朔膳으로 封進할 전복 3고지.〈耽羅營事例〉(58면).

2.3 이 두

1) 斗落[마지기]

上粟一斗落 所捧十斗, 中粟一斗落 所捧八斗, 下粟一斗落 所捧六斗/상품의 조 1마지기에 10말을 받아들이고 중품의 조 1마지기에 8말을 받아들이고 하품의 조 1마지기에 6말을 받아들인다.〈耽羅營事例〉(21면).

斗落은 '말디기〉마지기'의 차자 표기이다. 斗는 '말'의 훈독자 표기, 落은 '디-〉지-'의 훈독자 표기이다. 제주도방언은 주로 '말지기'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락'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다른 자료에서는 斗落只[마지기]로도 표기된다.

2) 白等[숣등]

辛亥白等報籌司傳掌中 折半取用於丐乞 還上蕩減之代/신해년에 '숣등'으로 비변사에 보고하여 傳掌한 것 중에 "절반은 비럭질로 取用하고 환자 탕감을 대신한다."고 하였다.〈耽羅營事例〉(28면).

白等은 보통 '숣등'으로 읽히며, '아뢰는 것은' 또는 '아뢰건대'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뢴 것'(곧 문서) 정도의 뜻으로도 쓰인다. 白은 '숣-'의 훈독자 표기, 等은 '등'의 음가자, 또는 '숣'의 훈독자 표기이다.

3) 捧上[받ᄌᆞ〉받자]

場稅穀捧上時每石色穀三升監官取用 落五升色庫分用/장세곡을 받아들일 때 매섬에 색곡 3되를 감관이 취용하고 낙곡 5되를 색고에서 나누어 쓴다.〈耽羅營事例〉(27면).

捧上은 '받ᄌᆞ〉받자'로 읽히고, 받아들이다 또는 받들어 바치다의 뜻으로 쓰인다.

4) 分[즈음]

每春三月分 分給 翌年二月捧上矣/매년 봄 3월 즈음에 나누어 주고 다음 해 2월에 받아들인다.〈耽羅營事例〉(28면).

分은 '즈슴〉즈음'의 훈독자 표기이다. '즈음, 쯤'에 대응한다.

5) 上下[차하]

每朔料米六斗式 平役 上下/매달 급료 쌀 여섯 되씩을 평역고에서 차하한다.〈耽羅營事例〉(6면).

禾北鎭 則每朔小米一石 自平役庫上下/화북진은 매달 좁쌀 한 섬을 평역고에서 차하한다.〈耽羅營事例〉(73면).

上下는 보통 'ᄎᆞ하〉차하'로 읽히며, 물건 따위를 지급하다 또는 내려주다의 뜻으로 쓰인다.

6) 式[식]

每朔料米六斗式 平役 上下/매달 급료 쌀 여섯 말씩 平役으로 차하한다.〈耽羅營

事例〉(6면)

式은 '씩'의 옛말 '식'의 차자 표기이다. '식'은 수량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각각 같은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7) 右味[올ᄒᆞᆫᄠᅳᆮ]

右伏準爲白內等云云 緣由文狀爲白遣 右味 伏候/위에 삼가 허락하는 것은 운운 연유로 文狀하옵고 위의 뜻을 삼가 살펴주십시오.〈濟州事例〉(52면).

右味는 기존의 이두자료집에서는 '올우미'로 읽히고 있으나 '올ᄒᆞᆫᄠᅳᆮ〉올ᄒᆞᆫ뜻'으로 읽을 수 있다. 右는 '올ᄒᆞᆫ'의 훈독자, 味는 'ᄠᅳᆮ〉뜻'의 훈독자 표기이다. '오른쪽의 뜻' 또는 '위의 뜻' 정도의 뜻이다.

8) 爲白遣[ᄒᆞᅀᆞᆸ고]

右伏準爲白內等云云 緣由文狀爲白遣 右味 伏候/위에 삼가 허락하옵는 것은 운운 연유로 文狀하옵고 위의 뜻을 삼가 살펴주십시오.〈濟州事例〉(52면).

爲白遣은 'ᄒᆞᅀᆞᆸ고'로 읽히며 'ᄒᆞ옵고'의 뜻으로 쓰인다. 爲는 'ᄒᆞ-', 白은 'ᅀᆞᆸ-', 遣은 '-고'의 차자 표기이다.

9) 爲白內等[ᄒᆞᅀᆞᆸ안ᄃᆞᆯ]

右伏準爲白內等云云 緣由文狀爲白遣 右味 伏候/위에 삼가 허락하옵는 것은 운운 연유로 文狀하옵고 위의 뜻을 삼가 살펴주십시오.〈濟州事例〉(52면).

爲白內等은 'ᄒᆞᅀᆞᆸ안ᄃᆞᆯ'로 읽히고, '하옵는 것은'의 뜻으로 쓰인다. 爲는 'ᄒᆞ-', 白은 'ᅀᆞᆸ-', 內는 '안', 等은 '듣' 또는 'ᄃᆞᆯ'의 차자 표기이다.

10) 次知[ᄎᆞ디〉ᄎᆞ지〉차지]

所謂都厘正官釜六坐 次知 進排/소위 도리정 관청솥 6좌를 담당하여 진배한다. 〈耽羅營事例〉(61면).

次知는 'ᄎᆞ디〉ᄎᆞ지〉차지'로 읽히며 담당자 또는 관리자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

11) 還上[환ᄌᆞ〉환자]

還上捧上時[色穀每石一升 監官取用落 三升色庫分用]/환자를 받아들일 때[色穀은 매 섬에 1되를 監官이 취용하고 낙곡 3되는 색고에서 나눠어 쓴다.]〈耽羅營事例〉(27면).

還上은 '환ᄌᆞ〉환자'로 읽히며 백성에게 꾸어줬던 곡식을 가을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른다.

2.4 단위

1) 迭[ᄌᆞ래] 〉 束[뭇]

靑草五千三百八十六迭/푸른 풀 5,386자래.〈耽羅營事例〉(65면).

靑草四十九迭四束上下/푸른 풀 49자래 4뭇을 차하한다.〈耽羅營事例〉(73면).

水稅藿五百十五束…日藿六十三束…生魚五十束/수세 미역 515뭇…날 미역 63뭇…생선 50뭇.〈耽羅營事例〉(59면).

迭은 'ᄌᆞ래'의 훈독자로, 나뭇단이나 풀단 따위를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정도를 세는 단위이다. 제주도방언에서는 '줄레'(낭 ᄒᆞᆫ 줄레 ᄒᆞ영 오키여.)로 실현된다. 제주도방언에서 나무 한 줄레는 대개 ᄒᆞᆫ 발(한 발) ᄒᆞᆫ 뿜(한 뻠) ᄒᆞᆫ 조리(한 조리, '조리'는 표준어 집게뻠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정도를 묶음으로 만든 것을 이른다. 말아 만든 묶음은 '드럼통' 정도가 된다고 한다. 제주도방언에서 '줄레'는 나무의 묶음을 세는 단위로 쓰이는데, 예문에는 靑草를 세는 단위로 쓰였다는 것이 특이하다.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어사전에 "'땔나무' 또는 '생나무'의 심마니말"로 '자래'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 '자래'가 단위명사 'ᄌᆞ래'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束은 '뭇'의 차자 표기로, 풀이나, 미역, 물고기 따위의 한 묶음을 뜻한다.

柴束之大者爲迭〈芝峯類說〉(7, 문자부, 자의). 州縣以鐵索束柴以量之曰 一二迭 無音義只稱ᄌᆞ래〈季葉記〉(2, 迭). 迭 鮮 物不滿束 자래 거〈字典釋要〉.

2) 券 · 卷[권] 〉 張 · 丈[장]

白紙一百四十九券八張貿用/흰종이 149권 8장을 무역하여 쓴다.〈耽羅營事例〉(28면).

白紙一百四十九卷八丈貿用/흰종이 149권 8정을 무역하여 쓴다.〈濟州事例〉(17면).

券은 '권', 張은 '장'의 차자 표기이다. '권'은 보통 종이 스무 장을 낱개로 세는 단위이다. 보통 卷으로 표기한다.

3) 斤 · 根[근] 〉 兩[냥]

姸根一斤四兩…橘葉六根/멀구슬나무 뿌리 1근 4냥…귤잎 6근.〈耽羅營事例〉(17면).

斤과 根은 '근'의 음가자 표기, 兩은 '양'의 음독자 표기로, 각각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4) 丹[단]

各里男丁每名木一丹草一迭收捧/각 마을 남정 매 명에게 나무 1단, 꼴 1줄레를 거두어 받는다.〈耽羅營事例〉(64면).

燒木六百三丹/땔나무 603단.〈耽羅營事例〉(65면).

丹은 단'의 차자 표기로, 땔나무나 풀 따위의 한 묶음을 이르는 단위이다. 출('꼴'의 제주도방언)이나 벼 따위는 대개 40단이 한 바리가 되고, 조 따위는 20단이 한 바리가 된다고 한다.

5) 同[동] 〉 疋[필] 〉 尺[자] 〉 寸[치]

正木反利八同二十九疋二十一尺八寸/품질이 좋은 무명베의 反利 8동 29필 21자 8치.〈耽羅營事例〉(56면).

同은 '동'의 음가자로, 보통 피륙의 경우 쉰 필을 한 동으로 친다고 한다. 疋은 匹로도 나타나는데, 피륙의 경우 일정한 길이와 넓이로 짤라낸 것을 세는 단위이다. 조선시대에는 보통 서른 다섯 자가 한 필이었다고 한다. 尺은 '자', 寸은 '치'의 차자 표기로, 각각 한 자 또는 한 치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치'는 보통 한 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였다.

6) 尾[마리]

秀魚一尾/숭어 1마리.〈耽羅營事例〉(60면).

尾는 '마리'의 훈독자 표기로, 주로 물고기나 벌레 따위를 낱개로 세는 단위이다.

7) 部[부]

毛浮一部/털뜸 1부.〈耽羅營事例〉(64면).
筒箇二十部…騎鞍十部/통개 20부…타는 안장 10부.〈濟州事例〉(8~9면).

部는 部로 읽히고 '통개'나 '안장', '털뜸' 따위를 낱개로 세는 단위이다.

8) 石[섬] 〉 斗[말] 〉 升[되] 〉 合[홉] 〉 夕[사] 〉 里[리] 〉 分[푼]

每朔 十五石 三斗 八升 四合 四夕 六里 三分/매 달 열 다섯 섬 세 말 여덟 되 네 홉 네 사 여섯리 세 푼.〈耽羅營事例〉(53면).

石[섬], 斗[말], 升[되], 合[홉], 夕[사], 里[리], 分[푼] 등은 곡식 따위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石은 '셤〉섬'의 음가자로, 보통 한 말의 열 곱절을 이른다. 斗는 '말'의 훈독자로, 보통 한 되의 열 곱절을 이른다. 升은 '되'의 훈독자로, 보통 열 홉을 이른다. 升은 刀로도 표기된다. 合은 '홉'의 음가자로, 보통 한 되의 10분의 1을 이른다. 夕은 '샤〉사'의 훈독자로,[2] 보통 한 홉의 10분의 1을 이른다. 보통 勺이 쓰인다. 里는 '리'의 음가자로, 보통 한 사의 10분의 1을 이른다. 分은 '푼'의 음가자로, 보통 한 리의 10분의 1을 이른다.

9) 束[뭇] 〉 箇 · 介[개]

生鰒六十二束四介/생복 62뭇 4개.〈濟州事例〉(38). 生魚一百八十二束六箇/생어 182뭇 6개.〈濟州事例〉(39)
水稅藿五百十五束/수세 미역 515뭇.〈耽羅營事例〉(59면).

束은 '뭇'의 차자 표기로, '묶음'을 낱개로 세는 단위이다. 물고기는 열 마리의 묶음을 한 뭇[束]이라 하고, 미역은 대개 50개를 한 뭇이라 한다.

10) 令[영], 張 · 丈[장]

小鹿皮二十五令/작은 노루가죽 25령.〈耽羅營事例〉(17면).

2) 如勺之爲夕[音샤]〈萬機要覽〉(財用編2, 田結, 田制). 夕 샤 李晬光曰 十合曰合 十合曰升 或云十勺爲合 今俗以合作夕 似無理 蓋作字之誤〈行用吏文〉.

玳瑁四丈 麂子獐皮二令/대모 4장 노루가죽 2령.〈濟州事例〉(9면).

令은 '영'의 음가자 표기, 張·丈은 '장'의 음독자 표기이다. 털이 있는 가죽을 세는 단위로 令이, 털이 없는 가죽을 세는 단위로 張·丈이 쓰인다.(有毛曰令 無毛曰張〈度支準折, 皮物, 注〉) 張·丈은 털이 없는 가죽 외에 보통 얇은 물건을 셀 때 쓰는 단위이다.

11) 員[원], 人[인], 名[명], 口[구]

訓長一員 掌儀二人 有司四人 校生一百五十人 募軍四十名 奴七 婢八 居接生六人…/훈장 1원, 장의 2인, 유사 4인, 교생 150인, 모군 40명, 사내종 7, 계집종 8, 거접생 6인, …〈耽羅營事例〉(6면).

男二萬三千五百八十三口 女二萬五千三百七十一口/남 2,3583구, 여 2,5371구.〈濟州事例〉(1면).

訓長 등은 員으로, 掌儀·校生·執事·有司·馬牛監·居接生 등은 人으로, 書員·哨軍·防軍·募軍·直軍·牧子·使令·閒丁 등은 名으로, 人丁 등은 口로 표기하였고, 奴婢 등은 수량단위명사로 표기하지 않았다.

員은 〈龍飛御天歌〉(16장)의 "姓 굴히야 員이 오니. 擇姓以尹. 員 官數也. 俗語稱守令爲員"의 기록으로 보면 부윤·목사·부사·군수·현감·현령 등의 관원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대개 9품 이상의 正職 벼슬아치를 셀 때는 員을, 품계가 없는 관료인 서리, 향리 또는 雜織, 과거급제 자 따위의 사람을 셀 때는 人을, 평민이나 賤役에 종사하는 사람을 셀 때 名 또는 口를 썼다. 員은 '분' 정도에 해당하는데, 다른 고문서에는 分이 '분'의 대응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12) 條[오리]

兒馬皮[一令作六條]/어린 말 가죽[1령은 여섯 오리를 만든다.].〈耽羅營事例〉(62면).

條는 '오리'의 훈독자 표기로, 가늘고 긴 조각을 낱개로 세는 단위이다.

13) 注之[주지] 〉 足 [족]

多士麻一足[佳文一分, 一注之爲五十足]/다시마 1족[가문으로 1푼. 1주지는 50족].〈耽羅營事例〉(60면).

多士麻一足[佳文一分. 一注之爲五十足]/다시마 1족[가문으로 1푼. 1주지는 50쪽.].〈濟州事例〉(39면).

層餠一百三十一貼…引餠三十二注之[大靜善手措備, 每注之價 米二斗五升]/추복 131접…인복 32주지[대정에서 월등히 나은 것을 조처하여 준비한다. 매 주지의 값은 쌀 두 말 닷 되로 한다.].〈耽羅營事例〉(14면).

條餠一百三十一貼[與層餠同] 引餠三十二注之[大靜善手措備, 每注之 米二斗五升]/조복 131접[추복과 같이 준다.] 인복 32주지[대정이 월등하여 갖추어 준비한다. 매 주지 당 쌀 2말 5되].〈濟州事例〉(5면).

注之는 '주지'의 차자 표기로, 미역·다시마 따위의 한 묶음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疋은 다시마 따위의 한 줄기를 이른다. 미역은 50족이 1주지가 된다.

注之는 미역·다시마 따위의 한 묶음을 이르는 말로도 쓰이지만, 引餠(납작하게 펴서 말린 전복) 따위의 한 묶음[束]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3] 이 때의 '주지'는 〈행용이문〉의 "注之 甘藿·多士麻 或稱丹, 或稱束, 或稱注之"라고 한 기록과 같이 '묶음'의 뜻으로 쓰인다. 문헌에 따라 炷·注乙[줄]로도 표기된다.

14) 坐[좌]

官釜二十二坐 私釜四十二坐/관 솥 22좌, 개인 솥 42좌.〈耽羅營事例〉(58면).

坐는 '좌'의 훈독자 표기로, 솥 따위와 같이 앉힐 수 있는 물건을 낱개로 세는 단위로 쓰인다.

15) 竹[죽] 〉 立[닙]

凉臺四竹五立/양태 4죽 5닙.〈耽羅營事例〉(18면).

竹은 '죽'의 차자 표기로, 양태나 망건 따위의 열 개를 이르는 말이다. 立은 '닙'의 차자 표기로, 양태나 망건 따위를 낱개로 이르는 말이다.

16) 貼[접] 〉 串[고지] 〉 介·箇[개], 立[닙]

烏賊魚七十三貼/오징어 73접.〈耽羅營事例〉(15면).

3) …引餠四五束…〈成宗實錄〉(권145, 13년 윤8월 甲戌).

引鰒[每朔封進時 隨其元封貼數 每貼半立式 捧上]/인복[매달 봉진할 때 원래 봉진하는 접수에 따라 매 접에 반 닢씩 받아들인다.].〈耽羅營事例〉(58면).

…全鰒三串…全卜三貼五串…/전복 세 고지…전복 3접 5고지….〈濟州事例〉(37면).

貼은 '접'의 차자 표기로, 물고기나 전복 따위의 묶음을 한 단위로 이르는 말이다. 종류에 따라 10개 또는 100개를 한 단위로 한다.[4] 串은 음이 '곶'이나 '꼬치'와 같은 말인 '고지'의 차자 표기로, 꼬챙이에 꿴 일정한 수의 음식물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介와 箇는 '개'의 음가자로, 낱개를 이른다. 立은 '닢'의 음가자로, 오징어나 전복 따위를 납작하게 말린 것을 낱개로 세는 단위이다.

17) 把[발 · 바리] 〉 斤[근]

南草一把/담배 1발.〈耽羅營事例〉(75면).

藿二把半/미역 2발 반.〈耽羅營事例〉(57면).

把는 '발' 또는 '바리'로 읽히며 두 팔로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줌'과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18) 片[편 · 조각]

白蠟二十四片/백랍 24조각.〈耽羅營事例〉(16면).

片은 음독자로 '편' 또는 훈독자로 '조각'으로 읽을 수 있다.

19) 匹[필], 首[마리]

靑馬四十六匹…牛雌雄幷二百四十六首/푸른 말 46필…소는 암수를 아울러서 246마리.〈耽羅營事例〉(20면).

匹은 '필'의 음가자 표기, 首는 '마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말을 셀 때는 匹로, 소를 셀 때는 首로 표기하였다. 다른 자료에서는 말을 세는 단위와 피륙을 세는 단위인 匹과 疋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事例〉에서는 분명히 구분해서 쓰고 있다. 首는 닭이나 물고기를 낱개로 셀 때도 쓰인다.

4) 十介作一串 十串作一貼〈度支準折〉(魚物).

20) 對[대]

鹿角一對/사슴뿔 1대.〈耽羅營事例〉(63면).

對는 '대'로 읽히며, 두 짝이 합하여 한 벌이 되는 물건을 세는 단위명사이다. 사슴뿔이나 갈비, 주련 따위의 한 벌을 셀 때 쓰인다.

2.6 도구 및 기구류

1) 結只匠[겯기장]

結只匠一/겯기장이 1사람.〈耽羅營事例〉(13면).

結只는 '겯기'의 차자 표기이다. '겯기'는 '겯다'의 명사형이다.

2) 鞍枝匠[질멧가지장]

鞍枝匠一/길마가지장이 1사람.〈耽羅營事例〉(13면).

'질멧가지'는 '길맛가지'의 제주도방언이다. '길맛가지'는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구부정한 나무를 이른다.

3) 凉臺[양대〉양태]

凉臺四竹五立/양태 4죽 5닢.〈耽羅營事例〉(18면).

凉臺는 '양대'의 차자 표기로, '양+태', 곧 '갓양태'를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凉太·凉台[양태] 등으로도 표기된다.

4) 於赤[어치〉언치]

於赤匠二/언치장 2사람.〈耽羅營事例〉(13면).

於赤은 '어치〉언치'의 차자 표기로, 於는 '어'의 음가자 표기, 赤은 '치'의 음가자 표기이다. 赤은 일부 고유한자음에서 '치'로 읽어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吹螺赤[됴라치], 阿加赤[아가치] 등과 같이)도 있고 어떤 명사성 어휘의 어두(赤乃[치마]와 같이)나 어말(乃赤[마치]와 같이)에 쓰이기도 한다.[5] 赤을

5) 吹螺赤 됴라치 動鼗時 御前鼓吹手 宣傳官廳員役〈羅麗吏讀〉. 擊子乃赤栗 경ᄌᆞ마치 조〈금양, 곡품〉.

'치'로 읽는 것은 단순히 한국한자음이 '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고대음 'chi'(昌石切)의 영향으로 보인다.[6] 중세국어에서 '어치'(물 어치(馬鞿)〈두해-초, 20:9〉. 鞿 어치 톄 俗呼鞿子 通作替〈훈몽-초, 중:13〉)였던 것이 근대국어에서 '엇치(屜子 엇치 屜一作替〈역해, 하:19〉)〉언티(鞍悽 亦作鞍替 언티 汗替 짬언티〈물명고 1:8〉)〉언치(鞍屜[音替] 언치 鞍替[소]〈재물보, 7〉)' 등으로 실현되고 현대국어에서 '언치'로 실현된다. '언치'는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깔아 말의 등을 덮어주는 물건을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於ㅁ赤[언치], 鞍赤[안치] 등으로도 표기된다.

5) 筒箇匠[동개장]

筒箇匠一/동개장 1사람.〈耽羅營事例〉(13면).
筒箇二十部/동개 20부.〈濟州事例〉(8면).

筒箇는 '동개〉동개·통개'의 차자 표기이다. '동개' 또는 '통개'는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지도록 가죽으로 만든 물건, 곧 살통을 이른다. 이것을 만드는 장인을 筒箇匠[동개장·통개장]이라 한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동개·동개' 또는 '살동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원래 '동개'라 했었는데 나중에 '통개'라고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革涉 동개 보 俗呼撒俗 靫 동개 차 俗呼덥개曰箭靫 箙 동개 호 簏 동개 록〈훈몽-초, 중:14〉. 飛魚俗 활동개…走獸壺 살동개〈역해보 16〉. 弓釵俗 활동개…箭釵俗 살동개〈동해, 상:48〉. 撒袋 살동개…捽靫 살동개에 붓흔 젹은 동개〈한청 5:21〉. 弓靫 활동개〈 한청 5:21〉.

6) 筒兒匠[동아장〉통아장]

筒兒匠四/통아장 4사람.〈耽羅營事例〉(12면).

筒兒는 짧은 화살을 쏠 때에 살을 넣어서 시위에 매어 쏘는 가느다란 나무통을 이르는 '통아'의 차자 표기이다. 살은 이 통을 통해서 나가고 통은 앞에 떨어진다고 한다.

7) 梳省[빗솔]

6) 赤 치 如鞍赤吹鑼赤 赤本元時語〈羅麗吏讀〉.

梳省[一介價米五升]/빗솔[1개의 값은 쌀 5되].〈耽羅營事例〉(64면).

梳省은 '빗살 사이의 때 따위를 빼는 솔'인 '빗솔'의 차자 표기이다. 梳는 '빗'의 훈독자 표기, 省은 '솔'의 훈독자 표기이다.

省 솔 如梳省·馬省之類〈행용이문〉.

8) 草省[새솔]

草省[一介價米一升]/새솔[1개의 값은 쌀 1되.]〈耽羅營事例〉(64면).

草省은 '새나 띠로 만든 솔'인 '새솔'의 차자 표기이다. 草는 '새'의 훈독자, 省은 '솔'의 훈독자 표기이다.

9) 毛浮[터럭뜸]

毛浮一部/털뜸 1부.〈耽羅營事例〉(64면).

毛浮는 털가죽으로 만든 '터럭뜸'의 차자 표기이다. 제주도방언 '터럭뜸'은 표준어 '털뜸'에 해당한다.

毛는 '터럭'('털'의 제주도방언)의 훈독자, 浮는 '쓺〉뜸'의 훈가자 표기이다.

2.7 기 타

1) 今生[금승·금싕]

今生馬皮[初不用之]…今生牛皮[初不用之]/금승말가죽[처음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금승송아지[처음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耽羅營事例〉(62면).

今生은 오늘날 한자음이 '금생'이지만 제주도방언 '금승·금싕'의 차자 표기이다. 제주도방언 '금싕물생이, 금싕물, 금싕송애기' 등에서 확인되는 '금승·금싕'은 표준어 '한 살'을 뜻하는 '하릅'에 해당하는 말이다. 오늘날 국어사전에는 '금승마·금승말[今-馬], 금승송애기=하릅송아지' 등이 등재되어 있다.

3. 結　論

이 글은 19세기 중반의 제주사와 관련된 자료인 〈탐라영사례〉와 〈제주사례〉에 보이는 고유어휘를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의 주 목적은 제주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독하거나 이해할 때 고유어휘임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 참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고유어휘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유어휘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종의 글에서 고유어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참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인혁(1994), "조선후기 제주의 〈사례〉와 사료적 가치", 제9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 발표요지.

권인혁(1996ㄱ), "조선후기 지방관아 재정의 운영실태: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권인혁(1996ㄴ), "〈耽羅營事例〉 (자료 해제)", 〈제주도사연구〉 5집, 제주도사연구회.

오창명(1995), "조선 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 고문서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오창명(1997), "〈濟州啓錄〉의 이두문과 이두",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